

세계적 사진작가 김아타 개인전

움직이는 모든것은 사라진다

이향휘 기자 입력 : 2014.01.08 17:05:24 수정 : 2014.01.08 17:08:15

사진 작가 김아타(57)는 마치 도인 같다. 삭발한 머리에 검은색 뿔테 안경, 중국식 칼라를 한 까만색 양복을 입은 모습이 그러하다. 스님들도 어렵다 여기는 `공(空)` 사상을 얘기하는 것도, 자연 회귀를 부르짖으며 본질을 찾아 헤매는 것도 영락없는 수행자 모습이다. 그의 지난한 예술 철학을 꿰뚫는 것도 불교를 포함한 동양 사상이다.



그가 6년간 침묵을 깨고 서울 신사동 313아트프로젝트에서 개인전을 연다. 전시장 벽에는 다시 아타라는 `Re-ATTA`라는 제목이 붙었고, `Part 1-온에어`가 부제로 달렸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라고 선언하는 듯한 비장함이 서려 있다.

김아타는 수십 년 전 본명인 김석중을 자신(我)과 타인(他)이라는 이름인 아타로 바꿨다. 너와 나는 둘이 아닌 하나의 존재라는 불교의 가르침을 던지시 말해주는 이름이다.

지난주 찾은 경기도 파주 작업실에서 그의 손때가 묻은 20년 작업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었다.

2년 전부터 시작한 자연 드로잉에서, 벌거벗은 남녀들이 들판이나 고속도로에 아무렇게나 쓰러져 있는 해체 시리즈, 다양한 사람들이 박물관 유리박스 등에 들어가 있는 뮤지엄 프로젝트, 2002년부터 시작한 온에어 시리즈가 제법 큰 작업실을 가득 메운다.

그를 국제적인 스타 작가 반열에 올린 온에어 프로젝트는 뉴욕 등 대도시 거리를 8시간 장노출을 통해 촬영한 `8 hours` 작품들과 `자화상` `얼음의 독백` `인달라 시리즈`를 포함한다.

세계에서 가장 변화한 뉴욕 맨해튼 타임스퀘어 한복판을 대형 카메라로 8시간 장시간 노출해 찍었더니 빌딩과 광고 간판 등 고정된 건물이나 사물은 그대로 나타나 있지만 움직이는 모든 것은 사라졌다. 빨리 움직이는 것은 빨리 사라지고, 느리게 움직이는 것은 느리게 사라질 뿐이었다. 거리를 바쁘게 움직이는 뉴욕커들 흔적은 어디에도 없다. 작가가 대표작으로 꼽는 `인달라 시리즈`는 어떤가. 뉴욕 등 대도시 12곳을 스틸 컷으로 찍어 1만 컷 포갠더니 고정된 것도 형상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잿빛 회색이 됐다.

노자 도덕경 5290자를, 반야심경 260자를, 논어 1만5817자를 포개도 하나의 모노톤 추상화가 됐다.

그는 "존재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가? 나는 허망함에 웃었고, 장엄함에 울었다"고 말했다.

전시는 다음달 7일까지. 나머지 2·3부 전시도 같은 공간에서 내년까지 열린다. (02)3446-3137

[이향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